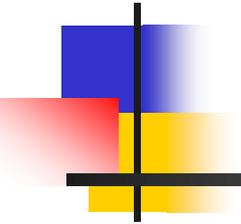


리얼리티 흔들어 대기 1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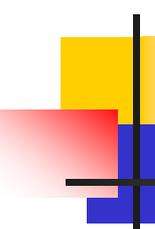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대학시절 ‘새로운 사회학’ 혹은 이와 비슷한 제목을 다룬 특강을 하나 듣고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떠올라 그 특강을 들은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아침식사 시간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행동을 시도하였다.

밥을 다 먹어 갈 때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 밀었던 밥그릇을 어머니에게 주뻗주뻗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나: 밥을 한 공기 더 부탁 드려도 괜찮을까요?
- 엄마: (당신 아들이 어딘가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 듯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 나: 아뇨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 엄마: (안심한 듯) 그럼 그런 이상한 말투 그만둬라!
- 나:(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 재첩국 맛은 정말 일품이군요! 이 재첩은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섬진강의 청정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군요! 게다가 그 청정함을 훌륭한 요리로 담아낸...
- 엄마: (급히 말을 가로 막으며) 너 역시 좀 이상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 두고 빨리 밥이나 먹어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진짜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 아냐?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가족과의 아침 식탁에서 내가 시도한 이 ‘기이한 행동’은 다름 아닌 너무나 당연해서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일상’을 일부러 한번 흘트려 보는 혹은 거기서부터 일탈해 보는 일종의 ‘실험’이었다.
- 그 일탈에 대한 반응은 예상외로 강했다.
- 그 일탈의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족의 식탁의 질서’를 필사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신체적 반응과 말.
-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이쯤에서 그 일탈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나: 사실은 엄마! 어제 사회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해서요!
- 어머니: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하지만 곧 바로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희한한 짓을 시키네... 엄마와 아버지는 너한테 그런 것 공부시키려고 뒷바라지해서 대학에 보낸 게 아니란다. 대학이란 곳이 머 대단한 것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모양이구나! 그만 됐으니까 빨리 밥이나 먹어라!
- 나: (멋쩍게 웃으면서) 알았어요. 엄마!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Garfinkel은 위의 식사장면에서 내 어머니의 태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살이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고 본다.
- 그리고 Garfinkel은 내 어머니처럼 어떤 사회집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에 대해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실한 집합체 구성원(bonafide collectivity member)」이라고 불렀다(Garfinkel, 1967).
- 그러나 식사장면에서 어머니는 이러한 상식에 충실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가변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다.
- Garfinkel은 이것을 「판단력 상실자(judgmental dope)」라고 표현했다.
- ‘내이름은 칸’ 어디에서 우린 이런 ‘판단력 상실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그런데 우리는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보통 상식이 통용되는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 그러나 Garfinkel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러한 상식과 일상에 매몰되어 버리면 ‘판단력 상실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 즉 ‘판단력 상실자’는 ‘반복가능하고 표준화된’ 사회 구조를 실제 행위를 하기 전부터 예측하여 행하는 것이다. Garfinkel 은 우리가 이러한 ‘판단력 상실자’가 되지 않도록 충고한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위에서 잠시 소개한 일상을 뒤흔드는 ‘위배실험’에 터해서 나는 ‘Ethnomethodologist’의 역할을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꼬마의 모습에 비유하고 싶다.
- 그리고 더불어 Garfinkel의 ‘EM’의 관점 또한 그러한 ‘용기 있는 꼬마’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왕은 재단사가 만들어 낸 세계 안에 붙들려 있었고 저잣거리의 백성들은 칼이 만들어 낸 세계 안에 묶여 있었다.
- 그래서 백성들은 벌거벗은 왕 앞에서도 숨을 죽였던 것이다.
- 이 때 무례하고 철없는 꼬마의 언어가 이 ‘실재’를 공격한 것이다.
- 꼬마가 그토록 무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어느 세계 혹은 일상의 백성도 아니기 때문이다.
- 아침하기에는 너무 철이 없었고,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어쨌든 그 때 하나의 일상(세계)이 깨어졌다.
- 그러나 재단사는 여전히 말한다.
- ‘천상의 옷을 걸친 왕이시여,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 그러나 꼬마의 외침으로 눈을 뜬 왕은 이미 깨어져버린 ‘세계’ 밖으로 빠져 나와 있었다.
-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며 황망히 가마머리를 궁으로 돌렸던 것이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Ethnomethodologist이기도 한 나는 EM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의 터가 되는 암묵적인 전제에 도전해서 그것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공략 불가능한 ‘객관적 사회구조’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현재 사람들의 ‘공동작업(collaborative work)’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상을 의심하기의 의미는?

- 그 Ethnomethodologist의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실재 (reality)의 구성과 창조를 도모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나는 EM은 한 마디로 하자면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 그것은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사회를 통해서 다른 현실의 가능성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 그 의미에서 EM의 실천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